

알카나 정60mg/30mg
(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 01/202406

알카나 정60mg/30mg

(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

본문번호214 KGMP
전문 의약품 직적업체

【성분・함량】1정 중 60mg

・유효성분：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별규)…………… 66.01 mg
(피마사르탄칼륨으로서 60mg)
・첨가제(동물유래성분)：유당수화물(기원：소, 사용부위：우유)
・첨가제(타르색소)：황색4호 알루미늄레이크, 청색4호 알루미늄레이크, 적색40호 알루미늄레이크
・기타 첨가제：미결정셀룰로오스, 스테아르산마그네슘, 오프라딘이 노란색(03B620117), 이산화규소,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 크로스카르멜로오스나트륨,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30mg
・유효성분：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별규)…………… 33.005 mg
(피마사르탄칼륨으로서 30mg)
・첨가제(동물유래성분)：유당수화물(기원：소, 사용부위：우유)
・첨가제(타르색소)：청색4호 알루미늄레이크
・기타 첨가제：미결정셀룰로오스, 스테아르산마그네슘, 오프라딘이 초록색(03B610050), 이산화규소,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 크로스카르멜로오스나트륨,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성질】

60mg：노란색의 한 면에 분할선이 있는 타원형의 필름코팅정

30mg：연두색의 각 모서리가 둥근 타원형의 필름코팅정

【효능・효과】

1. 본태성고혈압

【용법・용량】

1. 본태성고혈압

・성인
이 약의 권장 용량은 1일 1회 30 ～ 60밀리그램으로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한다. 이 용량에서 혈압이 적절히 조절되 지 않는 경우 1일 1회 120밀리그램으로 증량할 수 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이침에 복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혈압강하 효과는 투여 시작 후 2주 이내 나타나며, 약 8주 ～ 12주 정도에 최대효과가 나타난다.
・고령자
70세 이하의 고령자에 대해 초기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70세가 넘는 고령자의 경우 초효량은 이 약으로서 1일 1회 30 mg를 권장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항 참조)
・신장에 환자
경증～중증증의 신장애(creatinine clearance 30 ～ 80 mL/min)에서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으나, 중증의 신 장애 환자(creatinine clearance < 30 mL/min)의 경우 1일 1회 30 밀리그램으로 치료를 시작하며, 1일 60 밀리그 램을 초과하지 않는다.
・간장애 환자
경증의 간장애 환자에서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으나, 중증증 ～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이 약을 투여하지 않 는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항 및 10. 간장애환자에 대한 투여 항 참조)
・소아
만 18세 이하의 소아 및 청소년 환자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혈관내 유효 혈액량이 감소된 환자：예：고혈압의 이노제 복용환자 등)
혈관내 유효 혈액량 감소와 같이 저혈압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인 경우 초효용량으로 1일 1회 30밀리그램 투여가 권 장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항 참조)

【사용상의 주의사항】

- 경고
 - 이 약과 같이 레닌-안지오텐신계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을 일부 환자(제2～3기)에 투여시, 태아 및 신생아 손상 및 사망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 약 복용하는 동안 임신이 확인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7. 일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 참조)
-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이 약 또는 이 약의 함유된 성분에 대하여 과민증이 있는 환자
 - 일부 또는 수유부 (7. 일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 참조)
 - 신장투석 환자 (사용경험이 없음)
 - 중증증～중증 간장애 환자
 - 당뇨폐색 환자
 - 레닌억제제(알리사키렌)를 복용 중인 당뇨병이나 중증증～중증의 신장애환자(GFR <60mL/min/1.73m²)/6. 상호 작용항 참조)
 -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ACE) 억제제를 복용중인 당뇨병성 신증 환자/6. 상호작용항 참조)
 -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 가 있는 환자에는 투여하면 안 된다.
-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 혈액량이나 염이 감소된 환자：예：고혈압의 이노제를 투여중인 경우와 같이 레닌-안지오텐신계가 활성화된 환 자에게 이 약 초기 투여시 및 용량 증량시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환자는 상태를 충분히 관찰 하면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5. 일반적 주의 항 참조)
 - 신기능 손상자
레닌-안지오텐신계를 저해하는 약물에 민감한 환자에서 신기능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신기능이 레닌-안지오텐 신-알도스테론계에 활성에 의존적인 환자(예：중증의 울혈성 심부전 환자에게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저해제나 안지 오텐신Ⅱ 수용체 길항제 투여시 소변관종증, 진행성 고혈소혈증, 드물게 급성 심부전 또는 사망이 나타날 수 있다.
 - 신혈관성 고혈압 환자
단독성 또는 양측성 신동맥협착증 환자에게 레닌-안지오텐신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을 투여시 중증의 저혈압이나 신부전의 위험이 증가된다. (5. 일반적 주의 항 참조)
 - 대동맥 및 승모판 협착, 폐색：비후성 심근증 환자에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원발성 알도스테론증 환자：원발성 알도스테론증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레닌-안지오텐신계를 저해하는 혈압 강하제는 효과가 없으므로 이 약의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 이 약은 황색4호(타르타르산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과 관련하여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60mg에 한함))
- 이상반응
 - 본태성 고혈압
총 1216명의 본태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 중 이 약 30～120mg을 4～12주간 투여받은 559명 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이 중 85명의 환자가 6개월 동안 투여받았다.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증 ～ 중 등증으로 일시적이었으며, 발현율은 투여용량과 무관하였다. 가장 많이 보고된 이상반응은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본태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약과 관련된 이상반응*)

발현부위	발현빈도*	발현증상
신경계 질환	흔하게	두통, 어지러움
신장계 질환	흔하지 않게	실신, 진전, 편두통
위장관 질환	흔하지 않게	소화불량, 구토, 구역, 상복부 통증
일반적 질환 및 국소반응	흔하지 않게	무력증, 이물감
심혈심장사의 이상	흔하지 않게	간 효소수치 (ALT, AST) 상승, 혈소판 수 감소, 혈청크레아티닌(신장기능손상지표)
호흡기, 흉부 및 근육통 질환	흔하지 않게	기침
골격근 및 결합 조직 질환	흔하지 않게	근육통, 근육골격 경직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흔하지 않게	가려움증, 국소 두드러기

혈관 질환	흔하지 않게	말초혈조, 흉조
생식계 및 가소 질환	흔하지 않게	발기기능 장애

*1) 임상시험에 참여한 피험자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중 연구자가 약물과 명확히 관련이 있거나, 상당히 관련이 있 거나,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상반응
*2) 이상반응의 발현빈도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매우 흔하게(≥ 1/10)；흔하게 (≥ 1/100, < 1/10)；흔하지 않게 (≥ 1/1,000, < 1/100)；드물게 (≥ 1/10,000, < 1/1,000)；매우 드물게 < 1/10,000, 빈도 불명(확한 정보로부터 추정이 불가능함)

※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국내에서 재상사를 위하여 6년 동안 3,7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이상사제의 발현율은 인과 관계와 상관없이 10.42%(724/3,729명, 총 1043건)로 보고되었다. 이 중 중대한 이상사제를 발현 빈도에 따라 아래 표에 나열하였으며,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발현부위	기관계명	중대한 이상사례1)90% 1/1(3,729명, 총 82건)
신경계 및 말초 신경 질환	중증 및 말초 신경 질환	어지러움, 간질, 근위축성후측경화증, 신경근병증, 신경세포 염, 안면마비, 청상신경증, 척추관협착, 두통
	위장관 질환	급성췌장염, 장폐색, 출혈성심아직장염, 충수돌기염, 치 치, 복통
	상장 및 혈관 질환	두개강내출혈, 일과성허혈발작, 죽상경화증, 뇌경색악화, 뇌 출혈
드물게 (0.1～5%미만)	신생물 질환	간암, 대장암, 상세포암의신생물,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오로계 질환	급성신부전, 만성신부전, 신경적, 신우신염, 요실금
	호흡기 질환	비염, 섬유유폐모양, 인두염, 폐렴, 폐결핵
	전신-일반적 질환	시각, 오동작, 두통증
	골격근 질환	골관절염, 관절증
	대사 및 영양 질환	저혈당증, 고칼륨혈증
	혈소판, 출혈 및 응고 질환	백혈, 심방세동
	심박 이상 질환	맥박, 심방세동
	심근근육, 내막, 판, 판막 질환	관상동맥질환, 대동맥협착
	신생관 질환	심부전, 혈관이상증
매우 드물게 (0.1～5%미만)	신장 및 혈관 질환	뇌경색
	골격근 질환	골절
	전신-일반적 질환	가슴통증

또한,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발현 빈도에 따 라 다음의 표에 나열하였다.

발현부위	기관계명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 (490/3,729명, 총 643건)	예상하지 못한 약물 이상반응 0.94% (35/3,729명, 총 42건)
중증 및 말초 신경 질환		간질, 다발신경병증, 반신불완전마비, 치매, 파킨슨증 투근, 근위축성척삭경화증, 보행장애, 시신경손상, 신경염, 신경근병증, 신경세포염, 안구건조, 안면마비, 말초통증, 청상갑수두증, 척추뇌지 동맥증후군, 하지불안, 허혈성신장병증	간각이상, 떨림, 척추관협착
	위장관 질환	췌장염, 급성췌장염, 치통, 가스팽만, 구강궤양, 치질, 건조증, 급성췌장염, 대장염, 대장증후, 잇몸통증, 장폐색, 출혈성심장정맥염, 충수돌기염, 치주염, 침분비, 흑색변	위식도역류, 변비, 위장염
	피부 및 부속 질환	발진, 손발톱발광(이중), 지루성피부염, 피부질환, 각화증, 발한, 손발톱영양장애, 손발톱주위염, 접촉피부염, 발진탈모, 피부부	위식도역류, 변비, 위장염
드물게 (0.1% 미만)	골격근 질환	골관절염, 근육쇠약, 건조증, 골수염, 어깨회전근증후증, 외측상과원, 요통/만염, 좌골신경통, 턱통증	관절통, 관절염, 골근통, 근육쇠약
	상장 및 혈관 질환	두개강내출혈, 일과성허혈발작, 죽상경화증, 뇌경색악화, 뇌출혈, 동맥경화증, 말초혈관질환, 정맥류	-
	전신-일반적 질환	수근관증후군, 폐결핵, 거드먼이동증, 눈주위부종, 시망, 알레르기, 오만, 오동작/회, 괴물병	부종, 말초부종
	호흡기 질환	폐렴, 폐결핵, 객혈, 비염악화, 섬유유폐모양, 천식, 폐육아종, 흉곽벽신아상	인두염, 기래, 기관지염
	대사 및 영양 질환	고칼레스테롤혈증, 당뇨병, 고중성지방혈증, 갈증, 당뇨병악화, 식욕증, 저나트륨혈증, 통풍	-
	시각 이상 질환	눈통증, 망막질환, 녹내장, 백내장, 복시, 비문증, 포도膜炎	시각이상, 망막질환, 비문증
	오로계 질환	만성신부전악화, 방광염, 요로감염, BUN증가, 급성신부전, 신우신염	신부, 만성신부전악화
	방어기전 질환	중이염, 골공이감염, 농양, 박테리아감염, 생식기포진, 임균소진	대상포진
	신생물 질환	대장암증, 상세포암의신생물, 간암,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혈소판응기함증	-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신생물 질환	방광암, 암화시미러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정신신경 질환	몽환반응, 알츠하이머병, 자살시도, 초조	불면증, 우울증	